

오피니언

光日春秋

문국현



누구나 봄이 되면 스프링 휘버(Spring Fever)에 걸린다는 말이 있다. 생명의 기운이 넘쳐 오르는 봄의 들녘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우리들 모두의 열망을 말하는 것이다.

매년 4월이면 나도 반쯤 들떠서 산다. 안식년 결 경기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시작한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숲가꾸기 운동이 어느덧 23년이나 되어, 봄만 되면 언제나 그렇게 들떠서 살게 되는 가보다.

4월 1일 하루 종일 내린 비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튿날인 2일 새벽에도 비는 내리고 있었다.

관초라는 비웃을 입고 나무를 심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

금천리 밤나무 숲에서의 기원

리에 비료를 정성스레 묻어주는 모습은 하나 하나 생명을 심는 감동적인 모습들이었다. 특히, 덧흙을 덮고, 행여 흙이 쉽게 마를까봐 주변의 낙엽들을 모아 덮어주는 모습은 마치 잠자는 어린 아기들에게 정성스레 이불을 덮어주듯 사람이 넘쳐 보였다.

금천에는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환경림 조성목적만이 아닌 수확용 밤나무를 심는 것이라 의미가 새로웠다.

이러다 경제적 소득을 갖게 할 걸, 너무 과밀하게 웃자라 있던 숲을 솎아주고 가꾸어 주려고 시작한 생명의 숲 국민운동이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호뭇게 활발한 숲 운동으로 자리잡은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발전이자 우리 사회 모두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명력과 희망을 복날에도 전하기 위해 시작한 '평화의 숲 국민운동'이 탄생된지도 어언 7년이 되었다.

그 동안 평양 순안지구와 자강도 희천 지구에서 양묘를 하는 등 신뢰와 경험을 쌓은 결과 올해, 고성군 금천리에서 30여 만평에 이르는 밤나무 숲을 남북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에 촉촉히 젖은 금천리 밤나무 동산의 흙은 유난히 비옥해 보였다. 30여만 평 밤나무 동산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그날따라 유난히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생명의 숲 국민운동이 주관하고 있는 학교숲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범학교만 해도 5백 개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까지 합치면, 무려 3천 개에 달한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파리 유네스코 康津展이 주는 신선한 자극

지난 3일부터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파리 유네스코 康津展'이 열리고 있다. 유네스코와 강진군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천년 비석을 자랑하는 국보급 고려청자 수십여점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서적 등 강진이 자랑하는 유무형의 역사문화적 자산이 소개돼 현지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진군은 오래전부터 남도답사 1번지로 불릴 정도로 문화 유적지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 박물관 이상 고려 청자의 80%가 강진에서 제작됐고 전국에서 발견된 가마터 400여곳 가운데 180여곳이 강진면 대구면 일대에 집중돼 있다.

이번 유네스코 강진전은 유구한 문화유산이 과거의 유적으로 그치지 않고

미래 지역발전 동력으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발과 보존 양면에서 소외됐던 강진의 발전방향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내년 10월로 예정된 강진 도요지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가장 성공적인 지자체 문화행사인 강진 청자문화제의 한 차원인 도약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국내 자치단체가 세계 문화유산에의 심장부인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자기 고장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갖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인구 5만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문화 유적을 세계에 소개하고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벤트를 개최한 것은 미래 지역발전에 귀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피부색 왜국주의 녹이는 '영웅의 눈물'

꽃불영웅은 끝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5일 서울시청에서 명예 서울시민증을 받는 자리에서다. 방한 사흘동안 하인스 위드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 한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인스 위드 신드롬이라 할만큼 우리 사회에 갑작스레 '순혈주의'(純血主義)에 대한 비판이 일고있다. 단일민족임을 강조한 교과서가 비판받고, 언론마다 혼혈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꼬집는 글들이 범람하고 있다.

장가 못한 농촌총각들이 동남아와 중국, 몽골에서 데려온 외국인 신부들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배려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요란하다. 여당과 야당은 모처럼 한목소리로 외국인 혼혈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는 혼혈인과 외국인에 대한 이같은 깨달음이 한국사회 특유의 열정으로 돌아치다 이내 식어버리지 않을까 우려한다. 혼혈인과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무슨 정치적 구호나 모금 캠페인처럼 전개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휴머니즘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다. 당장 거리에서 만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눈인사를 보낼 수 있는 마음, 내 자녀가 혼혈아동과 교실에서 짝이 되었을 때 거부감을 갖지 않는 마음, 매맞는 외국인 신부가 주변에 있을때 그 남편에게 충고를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국계 흑인 하인스 위드가 유년시절 미국사회에서 받았을 멸시를 잘 알지 못한다. 그의 눈물에서 그가 극복했던 세월을 읽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한국에서 자라는 혼혈인들에게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야한다.

無等鼓

세계 최고의 갑부이자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인 빌 게이츠는 지난해 8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전미(全美)주의회 협의회에서 "교육 개혁 없이 미국에 미래는 없다"며 20 개 지립형 학교를 만들기 위해 3천600만 달러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유럽 각국도 인재양성에 이미 발동을 걸었다. 독일은 10개 엘리트 대학과 우수 연구소들에 향후 5년간 19억 유로(2조7천억 원)를 쏟아 붓기로 했다.

영국은 2001년부터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중심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2004년부터는 월반(越班)을 허용하면서 16세 인재들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야 앞바다 매립지에 가이오 중등교육학 교를 짓고 있다. 이 학교는 '국제성과 창조성을 갖춘 차세대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아시아의 교육 허브'를 꿈꾸며 독일 뮌헨공대, 미국 MIT, 존스 홉킨스대 등 12개 일류대학의 분교를 유치했다.

이렇듯 세계는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혁명에 들어갔다.

인재 육성 없이는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정부는 세계가 폐기할 평준화 정책에 목을 매고 있다. 심지어 대학의 신입생 선발전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더욱 육

고 있다. 지립형 사립고나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양극화를 부추긴다며 마뜩잖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21세기는 세계인과의 무한경쟁시대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 글로벌 핵심인재는 어디서,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가 답이다.

/정재현 사회2부장 jhjung@kwangju.co.kr

英才교육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강현아

10년도 더 지난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난다. 한 선배가 박사학위논문은 준비하던 중 아이가 박채고 울자 이불 위에 아이를 던져버렸다는 경험담을 들려줬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 뒤 필자 또한 박사학위논문을 쓰던 중 애지중지 기르던 돌 무렵의 큰 아이가 함박죽에 울고 보채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외면했다. 외면의 순간은 길지 않았지만, 우는 아이를 달래면서 흔히 말하는 '피를 말리는 듯한' 논문쓰기의 고통과 양육의 이중고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 있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여성의 출산 기피는 자신만 편하게 살기 위한 이기심 때문이 아니다. 지난해 직장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은 출산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현재의 소득으로 자녀 양육이 부담스럽기 때문(33.6%)', '출산을 하게 되면 직장을 유지하기 힘들 것 같아서(25%)', '산전·산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힘들 것 같아서(10.9%)' 등을 꼽았다.

직장에서 남자가 평등하게 대우받아

기고



이병창

지구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식물로 알려진 대나무, 그러나 식물학상 분류에서는 나무가 아닌 풀이다. 나무처럼 형성층이 없어 부피팽창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사계절 푸른 빛을 유지하는 사철 침엽수에 속한 식물이다.

대나무의 원산지는 중국 하남지방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열대성 식물로 벼(米)과에 속한다. 지구상에는 약 3천 200여종이 자라고 있고, 인도 300만ha를 비롯해 대만, 일본, 우리나라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남부지역에는 왕대, 솜대, 죽순대(맹종죽), 오죽, 조릿대 등이

이다. 올해처럼 대나무가 말라 죽는 것은 지난 겨울의 혹한과 강풍, 폭설로 인한 자연현상일 뿐이다. 모든 식물은 생장할 수 있는 한계온도가 있는데 대나무의 생장 한계온도는 영하 10℃이며, 최고온도는 34℃다.

지난해 12월 담양군의 최저온도는 영하 16.2℃까지 곤두박질 쳤다. 여기에 60년만의 폭설이 내려 대나무 숲 위에 쌓인 눈이 녹으면서 사철 푸른 대나무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일부 대나무는 죽기 전 후손을 남기려는 몸부림

자연현상을 놓고 '민심흥흥' 이라니

자라고 있으며, 대는 공예품은 물론 각종 생활용품으로 만들어져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죽향(竹鄕)이라 부르는 담양군에는 전국 대나무 면적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재배면적이 많으며, 대나무가 있는 곳엔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는 곳에는 대나무가 있을 정도다.

예로부터 담양군을 '대나무 고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얼마전 일부 언론에 담양군내에 '대나무가 꽃이 피면서 말라 죽고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후 '흥흥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유언비어마저 퍼졌고 있다.

그러나 대나무는 최저기온이나 극한 저온에 놓이게 되면 잎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와 얼음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부패가 커져 세포질을 압박, 얼은 동해(凍害)를 받아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것

으로 꽃을 피웠고 이를 끝으로 말라 죽고 있는 것이다.

대나무는 일생에 한 번 꽃이 피어 죽기 때문에 일회 번식식물로 3년, 4년, 20~25년, 30년, 60년, 120년의 주기설에 의해 일정 주기로 개화하고, 한 번 꽃이 피면 죽게 된다.

대나무 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은 영양이 부족하거나 생육환경이 불량하면 죽기 전에 빨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후손을 남기려는 습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자연현상을 놓고 '민심흥흥'이나 '병해' 라는 말을 한다는 건 옳지 않다.

대나무가 하나의 식물에 불과할 지 모르지만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려는 끈질긴 생명력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기회로 삼길 바라는 마음이다.

<담양군친환경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담당>

민간 의료보험 도입은 시기 상조

민간보험은 자사의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영리 회사다.

의료비에 조달되는 재원은 민간주도로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로부터 조달된다.

젊고 질병이 적은 계층에 대하여는 가입을 장려할 것이고, 노약자·과거병력자·유일환자 등의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계층에 대하여는 가입을 기피하거나 보험료를 높게 책정, 보험 가입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또 보험사간 경쟁에 따른 인건비, 광고비용 등 관리·운영비의 증가 등으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불만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 의료 보험 도입 여부를 논하는 것은 이따리다.

▲박영희·장홍근 관심음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이진경·광주시 북구 운정동

불필요한 신용카드는 반드시 해지 신청해야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친척·친구·동료 등의 권유로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발급받은 뒤 보통 가위로 잘라 무심코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렇게 조각난 신용카드라도 접착제로 붙이면 현금인출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이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자석을 부러뜨려도 N극과 S극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의 마그네틱도 물리적 충격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가위로 잘라 버린 신용카드를 접착제로 붙여 현금을 인출한 뒤 휴지통에 물건을 구입하다가 적발됐다.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구부러 버리기보다는 해당 카드회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부정사용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기 廣州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독독신침·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인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제작부 2200-626 <F A X 2200-521> 판 매 부 2200-551
경 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시 설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